

LG화학, 아크릴산 150리터 누출

나주 커브길에서 넘어져 일부 흘러 ... 소방당국 긴급출동 후 수습

나주에서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실은 유조차가 전도돼 일부가 누출됐다.

2013년 12월9일 오전 11시께 전남 나주 남평읍 도로에서 아크릴산 2만리터를 실은 유조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150리터가 도로 상에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화학 나주 플랜트에서 생산한 아크릴산을 여수단지로 이송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크릴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있지는 않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방당국과 환경당국은 긴급출동 후 아크릴산을 수습했다.

경찰은 여수산업단지로 향하던 아크릴산을 실은 유조차가 커브에서 미끄러지며 전도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09>